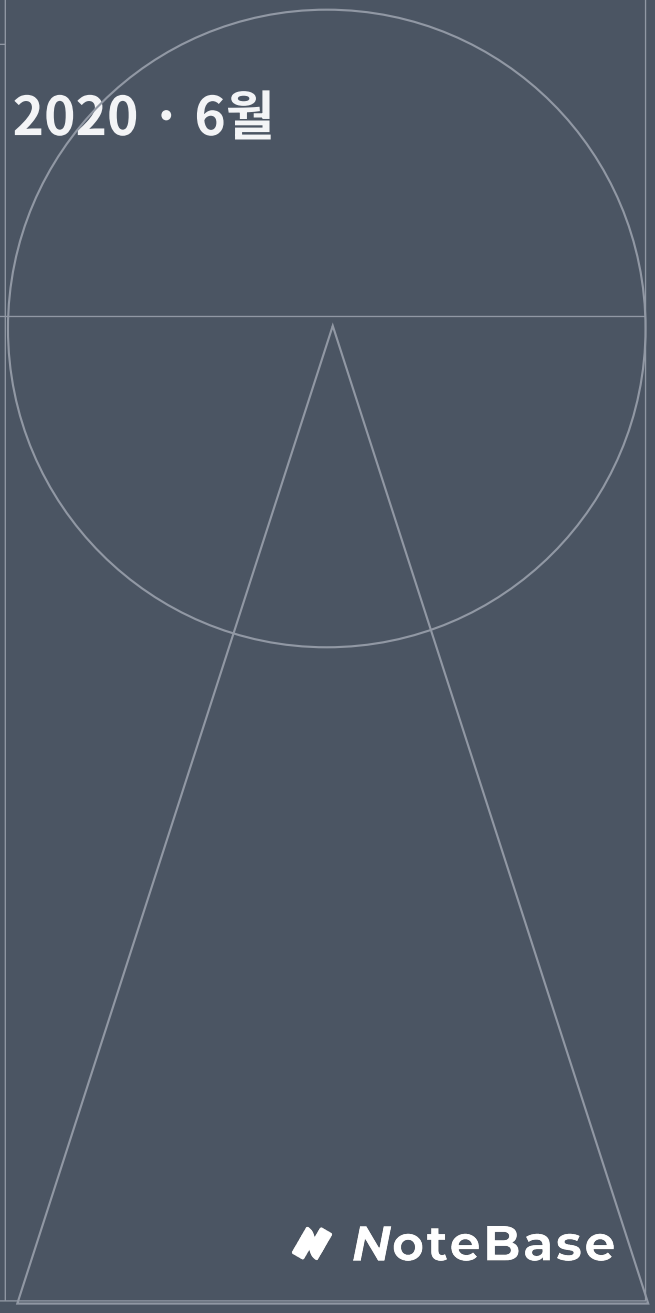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0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0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0 · 6월

문 1. <보기>에서 음의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등용문
ㄴ. 한여름
ㄷ. 눈요기
ㄹ. 송별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등용문'은 **ㄴ 첨가의 예외**로 [등용문]이라 발음한다. '송별연'의 [송☒벼련]도 새 소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받침 ㄹ이 뒤 음절로 이어져** 소리 난 것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음의 첨가는 원래 없던 소리가 새로 생기는 현상이다. 합성어·파생어에서 앞말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이면 ㄴ을 첨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첨가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

ㄱ. 등용문 — 첨가 없음: [등용문]으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9항에서 **ㄴ을 첨가하지 않는 예외**로 제시한 말이므로 [등뇽문]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ㄴ. 한여름 — ㄴ 첨가: 접두사 '한-'은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뒤의 '여름'은 '여'로 시작한다. 그 사이에 **새로운 ㄴ이 첨가**되어 [한녀름]으로 발음한다. 앞부분의 받침 ㄴ이 없어지거나 이동한 것이 아니다.

ㄷ. 눈요기 — ㄴ 첨가: '눈'과 '요기'가 결합한 말로, 자음 ㄴ 뒤에 '요'가 온다. '눈'의 받침 ㄴ을 유지하면서 '요' 앞에 ㄴ이 하나 더 생겨 **[눈뇨기]**로 발음한다.

ㄹ. 송별연 — 첨가 없음: ㄴ 첨가의 예외로 [송☒벼련]으로 발음한다. '별'의 받침 ㄹ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지는 **연음**이므로, 발음에 나타나는 ㄹ은 새로 첨가된 소리가 아니다. [송☒별련]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음의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ㄱ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표준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풀꽃아[풀꼬다]

② 옷 한 벌[오탄벌]

③ 넓둥글다[넙뚱글다]

④ 늙습니다[늑씀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풀꽃아'는 **[풀꼬차]**로 발음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아' 앞에서는 받침 'ㅊ'을 [ㄷ]으로 바꾸지 않고, **제 음가대로 이어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풀꽃아'는 '풀꽃'에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 '아'가 붙은 말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받침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꽃아'는 [꼬차]가 된다. 따라서 [풀꼬다]가 아니라 **[풀꼬차]**로 발음한다.

② O: '옷 한 벌'을 이어서 발음하면 '옷'의 받침 'ㅅ'이 먼저 대표음 [ㄷ]으로 바뀐다. 이 [ㄷ]과 뒤의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ㅌ]**이 되므로 [오탄벌]로 발음한다.

③ O: 겹받침 'ㄻ'은 자음 앞에서 보통 [ㄹ]로 발음하지만, '넓둥글다'에서는 예외적으로 **[ㅂ]으로 발음**한다. 이 [ㅂ] 뒤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므로 [넙뚱글다]가 된다.

④ O: '늙-'의 겹받침 'ㄺ'은 'ㅅ'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고, 그 뒤의 'ㅅ'은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 또한 '습'의 받침 'ㅂ'이 뒤의 **'ㄴ'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늑씀니다]로 발음한다.

NoteBase

문 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 놓아라.
만약 내어 놓지 않으면
굽고 구워 먹겠다.

— 「구지가」 —

① 향가 발생 이전의 고대시가이다.

② 환기, 명령, 가정의 어법을 지닌 주술적 노래이다.

③ 음악, 시가, 무용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고조선 곽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순수 서정시가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구지가」는 **왕을 맞이하려는 집단적·주술적 노래**이다. ④의 여옥과 관련된 전승과 순수 서정시가라는 설명은 「공무도하가」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구지가」는 향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고대시가**이다.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탄생 설화와 함께 전하며, 향찰로 기록된 향가와 구별된다.

② O: '거북아 거북아'는 대상을 불러 주의를 끄는 환기, '머리를 내어 놓아라'는 명령, '만약 내어 놓지 않으면'은 가정의 어법이다. 이어지는 '굽고 구워 먹겠다'는 위협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이러한 표현은 **말의 힘으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술적 성격**을 드러낸다.

③ O: 배경 설화에서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춘다. 따라서 가사인 시가, 가창인 음악, 몸짓인 무용이 결합된 **종합 예술**의 성격을 지닌다. 오늘날 글로 읽는 가사만을 독립적으로 감상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④ X: 여옥과 관련된 전승 및 순수 서정시가라는 설명은 **「공무도하가」**에 해당한다. 그 배경 설화에는 백수광부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하고, 이를 목격한 곽리자고가 아내 여옥에게 전하자 여옥이 다시 노래하는 과정이 나온다. 「공무도하가」가 남편을 잃은 개인의 슬픔을 드러내는 데 비해, 「구지가」는 **공동체가 왕의 출현을 기원하며 부른 주술적 노래**이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단위성 의존 명사의 수량이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고등어 한 <u>손</u> < 양말 한 <u>타</u> < 바늘 한 <u>쌈</u> < 북어 한 <u>쾌</u>
② 고등어 한 <u>손</u> < 양말 한 <u>타</u> < 북어 한 <u>쾌</u> < 바늘 한 <u>쌈</u>
③ 고등어 한 <u>손</u> < 북어 한 <u>쾌</u> < 양말 한 <u>타</u> < 바늘 한 <u>쌈</u>
④ 고등어 한 <u>손</u> < 바늘 한 <u>쌈</u> < 양말 한 <u>타</u> < 북어 한 <u>쾌</u>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북어 한 쾌는 **20마리**, 바늘 한 쌈은 **24개**를 뜻하므로, 수량이 적은 것부터 놓으면 쾌가 쌈보다 앞선다.

올바른 순서

고등어 한 손 → 양말 한 타 → 북어 한 쾌 → 바늘 한 쌈

고등어 한 손: '손'은 고등어의 큰 것 한 마리와 작은 것 한 마리를 합한 **2마리**를 세는 단위이다. 제시된 네 단위 가운데 나타내는 수량이 가장 적다.

양말 한 타: '타'는 열둘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로, 양말 한 타는 **12켤레**를 뜻한다. 수량 12는 한 손의 2보다 크므로 한 손 뒤에 놓인다.

북어 한 쾌: '쾌'는 북어 **20마리**를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이다. 수량 20은 한 타의 12보다 크므로 한 타 뒤에 놓인다.

바늘 한 쌈: '쌈'은 바늘 **24개**를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이다. 수량 24는 한 쾌의 20보다 크므로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문 5. <보기>에 제시된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최인훈의 「광장」
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ㄷ. 한강의 「소년이 온다」
ㄹ. 염상섭의 「삼대」

① ㄱ → ㄷ → ㄹ → ㄴ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ㄴ → ㄱ → ㄷ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광장」은 **해방 이후와 6·25 전쟁기**를, 「무기의 그늘」은 그보다 뒤인 **베트남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다. 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구별하면 가운데 놓일 작품들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

올바른 순서

ㄹ → ㄱ → ㄴ → ㄷ

ㄹ. 염상섭의 「삼대」: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조씨 집안 삼대의 갈등과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그린다. 해방 이전의 사회를 다루므로 네 작품 가운데 시대적 배경이 가장 이르다.

ㄱ. 최인훈의 「광장」: **1945년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과 휴전 무렵**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이명준이 남한과 북한을 오가며 겪는 이념적 갈등과 전쟁 포로로서 중립국을 선택하는 과정이 그려지므로, 일제강점기를 다룬 「삼대」 다음에 놓인다.

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1960년대 베트남 전쟁기**를 배경으로 전쟁과 군수 물자의 암거래를 다룬다. 1950년대의 6·25 전쟁을 다룬 「광장」보다 뒤이며, 1980년의 광주를 다룬 「소년이 온다」보다 앞선다.

ㄷ. 한강의 「소년이 온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광주와 그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다룬다. 중심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이 베트남 전쟁보다 뒤에 일어났으므로 네 작품 가운데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문 6. <보기>에서 설명한 문학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갈래이다. 고려 후기에 성립되었지만, 조선 시대의 새로운 지도 이념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더욱 융성해졌다. 3장 6구의 절제된 형식과 유장한 기품을 특징으로 하고, 여러 장을 한 편에 담은 연장체 형식으로도 창작되었다.

① 「한림별곡」
② 「월인천강지곡」
③ 「상춘곡」
④ 「도산십이곡」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3장 6구'의 정형적 형식은 **시조**의 특징이다. 「도산십이곡」은 시조 12수를 하나의 작품으로 엮은 **연시조**이므로, 여러 수를 이어 창작했다는 설명에도 부합한다.

핵심 풀이

<보기>의 갈래는 시조이다. 시조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 6구**를 기본 형식으로 하며, 고려 후기에 성립하여 조선 시대 사대부의 사상과 정서를 담는 갈래로 발전하였다. 여러 수의 시조를 하나의 주제 아래 연결한 작품을 연시조라고 한다.

「도산십이곡」은 이황이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앞의 6수인 '언지'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뜻을, 뒤의 6수인 '언학'은 학문과 수양의 자세를 노래한다. 각 수가 시조의 형식을 갖추면서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되므로, <보기>의 형식과 사상적 배경에 모두 부합한다.

다른 작품 중 「한림별곡」은 경기체가, 「월인천강지곡」은 악장, 「상춘곡」은 가사에 해당한다. 경기체가나 악장도 여러 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연장체라는 점만으로 시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3장 6구'라는 형식적 단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NoteBase

문 7.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현재 그녀는 건강이 매우 좋다.

① 그녀의 성격은 더할 수 없이 좋다.
② 서울 간 길에 한 번 뵈올 땐 혈색이 좋으셨는데?
③ 다음 주 토요일은 결혼식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이다.
④ 대화를 하는 그의 말투는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좋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보기>의 '좋다'는 **몸이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혈색이 좋으셨는데'도 얼굴빛을 통해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문맥적 의미가 가깝다.

선지별 해설

<보기>에서는 '좋다'가 '건강'을 설명하므로 몸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각 선지에서도 '좋다'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살펴 의미를 비교한다.

① '성격이 좋다': **성격이 원만하거나 사람됨이 훌륭하다**는 뜻이다. 신체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② '혈색이 좋으셨는데': 혈색은 얼굴에 드러나는 핏기나 얼굴빛이다. 여기서는 얼굴빛이 **건강해 보이는 상태**를 뜻하므로, 몸이 건강하다는 <보기>의 의미와 가깝다.

③ '결혼식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 그날이 **결혼식을 하기에 알맞다**는 뜻이다. 건강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때인지를 평가한다.

④ '말투는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좋았다': 말투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투에서 느끼는 유쾌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②의 '좋으셨는데'가 <보기>의 '좋다'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깝다.

NoteBase

문 8. <보기>의 밑줄 친 ㉠~㉣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기>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뙨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늬가 오면 늬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뙤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골짜기'는 '눈물 같은', '달밤이 싫여'와 연결되어 **슬픔과 어둠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화자가 소망하거나 긍정하는 밝은 세계와 대비되는 시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시어의 성격은 그 말의 사전적 뜻만이 아니라, 주변 표현과 화자의 태도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이 작품에서는 밝음과 어둠, 기쁨과 슬픔의 대비가 기준이 된다.

㉠ 해: 화자는 '해야 솟아라'를 반복하며 해가 떠오르기를 바란다. 해는 '어둠을 살라먹고' 솟아오르는 존재로, **어둠을 물리치는 밝음과 희망**을 나타낸다.

㉡ 골짜기: '눈물 같은'이라는 수식어가 슬픔을 드러내며, 이어지는 '아무도 없는 뜰'은 외로움을 더한다. 화자가 '달밤이 싫여'를 반복하는 점에서도 골짜기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어둡고 슬픈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청산: 해가 오면 '청산이 좋아라'라고 하며 기쁨을 드러낸다. '훨훨훨 깃을 치는'이라는 표현은 청산에 생동감을 부여하므로, 청산은 **해와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긍정적 공간**이다.

㉣ 양지: 햇볕이 드는 밝고 따뜻한 곳으로, 화자가 사슴을 따라가 함께 노는 공간이다. 뒤에서 꽃·새·짐승이 한자리에 모여 고운 날을 누리려는 소망으로 이어지므로, **생명과 어울림의 공간**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해·청산·양지가 밝음과 생명, 기쁨의 세계에 속하는 데 비해, 골짜기는 어둠과 슬픔의 세계에 속한다. 따라서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시어는 ㉡의 '골짜기'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는 아버지의 유언

② 존경 받는 사람이 되었다.

③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

④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돼라는'은 아버지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자리이므로 **'되라는'**으로 고쳐야 한다. 상대에게 직접 명령할 때 쓰는 '돼라'와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따라서 '되-' 뒤에 어떤 어미가 결합하는지, 그 결합에 '어'가 포함되는지를 살펴 표기를 판단한다.

① X: 아버지의 명령을 간접 인용하는 표현이므로 '돼라는'을 **'되라는'**으로 고친다. '되라는'은 '되라고 하는'이 줄어든 표현으로, 이 자리에는 '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② O: '되었다'는 어간 '되-'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되었다'를 줄이면 '됐다'**가 되며, 줄이지 않은 '되었다'도 바른 표기이다.

③ O: 상대에게 직접 명령하는 문장에서는 어간 '되-'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붙어 '되어라'가 된다. 이를 줄인 **'돼라'**는 바른 표기이다.

④ O: '되고'는 어간 '되-'에 연결 어미 '-고'가 붙은 형태이다. **'어'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돼고'가 아니라 '되고'로 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주된 설명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는 좋지 않은 사람을 곧잘 동물에 비유한다. 욕에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동물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좋은(선한) 것일까? 베르그는 오히려 "나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를 부정한다. 인간은 인간을 속이지만 동물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인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동물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인다. 인간보다 더 잔인한 동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필요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을 인간 외 어느 동물이 한단 말인가?

① 교사의 자기계발, 학부모의 응원, 교육 당국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법, 요리사의 정성이 합쳐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② 의미를 지닌 부호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을 기호라고 한다. 수학, 신호등, 언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꿀이 있음을 알리는 벌들의 춤사위도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핵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이 전부여서 세포라고 할 수 없다.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증식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을 할 수 있다.

④ 나물로 즐겨 먹는 고사리는 꽃도 피지 않고 씨앗도 만들지 않는다. 고사리는 홀씨라고도 하는 포자로 번식한다. 고사리와 고비 등을 양치식물이라 하는데 생김새가 양(羊)의 이빨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기>는 인간과 동물이 남을 속이는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조**를 사용한다. ③도 세균과 바이러스의 크기·구조·증식 조건을 견주어 차이를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같은 기준에서 견주어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식이다. <보기>는 인간은 인간을 속이지만 동물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불필요한 살생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강조한다. 첫 문장의 '동물에 비유한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소개하는 말이며, 글 전체의 주된 설명 방식은 대조이다.

① 교육에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다. 서로 다른 두 영역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는 비유**이며,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와 구별된다.

② 기호의 뜻을 밝히는 **정의**와 수학·신호등·언어·벌의 춤사위를 구체적으로 드는 예시가 사용되었다. 두 대상을 같은 기준에서 견주어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③ 세균과 바이러스를 크기·구조·증식 조건이라는 기준에서 견준다. 특히 '세균과 달리'라는 표현으로 바이러스의 증식 조건을 제시하여 **두 대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④ 고사리가 꽃이나 씨앗 대신 포자로 번식한다는 특성을 설명하고, '양치식물'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밝힌다. 두 대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한 글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대조를 주된 설명 방식으로 사용한 것은 ③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설명한 소설의 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소설 속의 한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인물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말한다. 주인공의 환경이나 행동 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① 일인칭 주인공 시점
② 일인칭 관찰자 시점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④ 작가 관찰자 시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작품 속 **부수적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점이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핵심이다.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표현만으로 작품 밖 서술자의 시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통 해설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의 부수적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점이다. 서술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주인공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보기>의 '소설 속의 한 등장인물'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음을, '부수적인 인물'은 서술자가 주인공과 다른 인물임을 뜻하므로 일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일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면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말보다 **누가 작품 안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지**가 시점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NoteBase

문 12. 조선 시대 대표적 문사(文士) 송강 정철이 창작한 가사가 아닌 것은?

① 「속미인곡」
② 「면앙정가」
③ 「관동별곡」
④ 「사미인곡」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면앙정가」의 작가는 정철이 아니라 **송순**이다. 면앙정 주변의 자연 경치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속미인곡」은 정철이 지은 가사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나타내며, 두 여성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다.

② X: 「면앙정가」는 **송순이 지은 가사**이다. 담양의 면앙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따라서 정철의 작품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③ O: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 지역을 유람한 경험과 감흥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④ O: 「사미인곡」은 정철이 지은 가사이다.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낸 **연군 가사**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물속에 잠긴 막대기는 굽어 보이지만 실제로 굽은 것은 아니다. 이때 나무가 굽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각 때문도 아니고 눈에 이상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나무는 정말 굽어 보이는 것이다. 분명히 굽어 보인다는 점과 사실은 굽지 않았다는 점 사이의 (㉠)은 빛의 굴절 이론을 통해서 해명된다.

굽어 보이는 나무도 우리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현실이고, 실제로는 굽지 않은 나무도 하나의 현실이다. 전자를 우리는 사물이나 사태의 보임새, 즉 (㉡)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사물이나 사태의 참모습, 즉 (㉢)이라고 부른다.

① ㉠: 葛藤, ㉡: 現象, ㉢: 本質

② ㉠: 葛藤, ㉡: 假象, ㉢: 根本

③ ㉠: 矛盾, ㉡: 現象, ㉢: 本質

④ ㉠: 矛盾, ㉡: 假象, ㉢: 根本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굽어 보이는 모습과 실제로 굽지 않은 상태가 서로 맞지 않는 관계는 **모순(矛盾)**이다. 글에서는 직접 경험하는 보임새를 **현상(現象)**, 그와 구별되는 사물의 참모습을 **본질(本質)**로 설명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모순(矛盾): '굽어 보인다'는 경험과 '실제로는 굽지 않았다'는 사실 사이의 **서로 맞지 않는 관계**를 나타낸다. 빛의 굴절 이론은 막대기 자체가 굽지 않았는데도 굽어 보이는 이유를 밝혀 이 관계를 해명한다. 갈등(葛藤)은 생각이나 이해관계 등이 달라 서로 충돌하거나 마음속에서 대립하는 상태를 뜻하므로, 보임새와 실제 상태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빈칸에는 적절하지 않다.

㉡ 현상(現象): 사물이나 사태가 **직접적인 경험에 드러나는 모습**을 뜻한다. 글에서 물속의 나무가 굽어 보이는 모습은 직접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의 현실이므로 현상에 해당한다. 가상(假象)은 실제와 다르면서 사실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리키지만, 이 글은 단순히 거짓된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주어진 보임새를 참모습과 대비하고 있다.

㉢ 본질(本質):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구별되는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참모습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굽어 보이는 모습과 달리 **실제로 굽지 않은 나무의 참모습**이 이에 해당한다. 근본(根本)은 사물의 바탕이나 비롯된 뿌리를 뜻하므로, 현상과 대비되는 참모습을 가리키는 이 자리에는 본질이 알맞다.

㉠에는 矛盾, ㉡에는 現象, ㉢에는 本質이 들어가므로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 사 왔다.

②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③ 이에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④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부에서'는 '실시한'의 행위 주체를 나타내므로 관형절 안의 **주어**이다. 나머지 밑줄 친 부분은 장소·이유·비교 기준을 나타내며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시장에서': 부사어이다. 물건을 사는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를 나타내며 '사 왔다'를 수식한다. 이때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마음에서': 부사어이다. 고마운 마음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을 수식한다. 이때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③ '이에서': 부사어이다. '이보다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라는 뜻으로, '이'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더 나쁘다'의 의미를 한정한다. 이때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 '정부에서': 주어이다. '정부에서 실시한'이라는 관형절 안에서 조사를 실시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낸다. '정부가 실시한'으로 바꾸어도 같은 관계가 드러난다.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은 이때의 '에서'는 주격 조사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인 '조사 결과가'와는 구별된다.

①~③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부사어이며, ④의 밑줄 친 부분만 주어이므로 문장 성분이 다르다.

NoteBase

문 15. <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어 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강낭콩, 고삿, 사글세

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②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③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④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강낭콩, 고삿, 사글세'는 모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가 굳어져 널리 쓰이는 경우**이다. 어원에 맞추어 되돌리기보다 실제로 정착한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공통 해설

표준어 사정 원칙 제5항은 사람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 원래 형태와 달라진 말이 널리 정착하면, **굳어진 현실의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학문적으로 어원을 알 수 있더라도 반드시 그 형태를 되살려 쓰는 것은 아니다.

'강낭콩'은 '강남콩'의 형태가 변하여 정착한 말이다. '고삿'은 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를 가리키며, 예전에 '고샅'으로 쓰던 말에서 어원 의식이 약해져 달라진 형태를 인정한 것이다. '사글세'는 '삭월세'를 한자어로 보는 처리를 취하지 않고, 실제로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말이다. 세 단어는 모두 제5항의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공통 기준은 **어원형보다 변화하여 정착한 형태를 인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또한 세 단어의 공통점을 모음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단순히 비슷한 발음의 말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하나를 고르는 규정보다 어원과의 관계를 다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가장 옳은 것은?

격분의 물결은 사람들의 주의를 동원하고 묶어내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매우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까닭에 공적인 논의와 공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격분의 물결은 그러기에는 통제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하며, 일정한 형태도 없이 쉽게 사라져 버린다. 격분의 물결은 갑자기 불어났다가 또 이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소멸한다. 여기서는 공적 논의를 위해 필수적인 안정성, 항상성,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다. (㉠) 격분의 물결은 안정적인 논의의 맥락 속에 통합되지 못한다. 격분의 물결은 종종 아주 낮은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격분 사회는 스캔들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는 침착함, 자제력이 없다. 격분의 물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항기, 히스테리, 완고함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대화도,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격분 속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의 구조를 갖춘 안정적인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른바 분개한 시민의 염려라는 것도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자신에 대한 염려일 뿐이다. (㉠) 그러한 염려는 금세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다.

— 한병철, 「투명사회」 중에서 —

① 그런데
② 그리고
③ 따라서
④ 하지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 ㉠의 뒤 문장은 앞에서 제시한 사정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를 나타낸다. 앞 내용을 근거로 뒤 내용을 이끄는 **'따라서'**가 알맞다.

NoteBase

공통 해설

접속 부사는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에 맞게 선택한다. 앞 문장이 이유나 근거이고 뒤 문장이 그에 따른 결과나 결론이면 **'따라서'**로 연결한다. 이 글의 두 ㉠에는 모두 이 관계가 성립한다.

첫 번째 ㉠: 격분의 물결에는 공적 논의에 필요한 안정성·항상성·연속성이 없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논의의 맥락에 통합되지 못한다. 앞 문장에서 제시한 **필수 조건의 부재**가 뒤 문장의 결과를 설명한다.

두 번째 ㉠: 격분 속에서는 사회 전체를 염려하는 안정적인 '우리'가 형성되지 않고, 시민의 염려도 대체로 자신에게만 향한다. 이처럼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묶어 줄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금세 흩어진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두 자리 모두 앞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잇는 '하지만'이나 화제를 전환하거나 다른 방향의 내용을 잇는 '그런데'보다, 근거에 따른 결과를 이끄는 '따라서'가 적합하다. '그리고'는 내용을 덧붙이는 연결이므로, 이 글의 **이유와 결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NoteBase

문 17. <보기>에서 설명한 시의 표현방법이 적용된 시구로 가장 옳은 것은?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가장하거나 위장하는 것이다. 즉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표면의미(표현)와 이면의미(의도) 사이에 괴리와 모순을 통해 시적 진실을 전달하는 표현방법이다.

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②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김춘수, 「꽃」
③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 사람을 다스린다 - 김광섭, 「산」
④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울지 않겠다는 말로 이별의 깊은 슬픔을 오히려 드러낸다. 이처럼 **겉으로 하는 말과 속뜻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반어이다.

공통 해설

<보기>가 설명하는 표현 방법은 반어이다. 반어는 말하는 이의 실제 의도나 감정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속뜻을 강조한다. 판단 기준은 표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속뜻이 반대인가**이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임이 떠나는 상황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단호한 말에는 임을 보내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담겨 있다. **울지 않겠다는 말로 울고 싶은 슬픔을 강조**하므로 <보기>의 설명에 부합한다.

나머지 시구에는 이러한 말과 속뜻의 반대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햇발이 속삭이고 샘물이 웃는다는 표현, 이름을 불러 주자 꽃이 되었다는 표현, 산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각각 대상의 모습이나 의미를 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은 표현된 내용과 반대되는 의도를 숨겨 전달하는 경우가 아니다.

NoteBase

문 18.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연결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국지색(傾國之色) - 경중미인(鏡中美人)

② 지록위마(指鹿爲馬) - 지란지화(芝蘭之化)

③ 목불식정(目不識丁) - 목불인견(目不忍見)

④ 폐의파관(敝衣破冠) - 폐포파립(敝袍破笠)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폐의파관'과 '폐포파립'은 모두 해진 옷과 부서진 관·갓을 가리키며, **너절하고 초라한 차림새**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경국지색'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뛰어난 미모, 또는 그런 미인을 이른다. '경중미인'은 거울 속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겉보기와 달리 실속이 없는 일을 비유한다. **뛰어난 아름다움과 실속 없음**은 서로 다른 의미이므로 유사한 뜻의 연결이 아니다.

② X: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우겨 남을 속이는 것을 이른다. '지란지화'는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에 물들듯, 좋은 사람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아 감화되는 것을 뜻한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좋은 감화를 받는 것**은 뜻이 다르다.

③ X: '목불식정'은 쉬운 글자인 '丁' 자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상태를 이른다. '목불인견'은 눈앞의 상황이 딱하거나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음을 뜻한다. 앞의 말은 **글자를 알지 못함**을, 뒤의 말은 **차마 볼 수 없음**을 나타내므로 유사한 뜻이 아니다.

④ O: '폐의파관'은 해진 옷과 부서진 관을, '폐포파립'은 해진 도포와 부서진 갓을 뜻한다. 옷과 관·갓을 나타내는 한자는 다르지만, 두 말 모두 **너절하고 초라한 차림새**를 이르므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하나는?

① 그림이 실물과 같다.

② 나는 학생이 아니다.

③ 지호가 종을 울렸다.

④ 길이 매우 넓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길이 매우 넓다'의 '넓다'는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이다. '매우'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로,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다. 서술어 자체는 세지 않으며, 부사어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때만 자릿수에 포함한다.

① '같다': 두 자리 서술어이다. 무엇이 무엇과 같은지를 나타내므로 주어 '그림이'와 비교 대상인 **필수적 부사어 '실물과'**가 필요하다.

② '아니다': 두 자리 서술어이다. 주어 '나는'과 **보어 '학생이'**가 필요하다. '학생이'는 주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 '이'가 붙었지만, '아니다' 앞에서 부정되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주어가 아니라 보어이다.

③ '울렸다':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 문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울렸는지를 나타내므로 주어 '지호가'와 **목적어 '종을'**이 필요하다. '종이 울렸다'의 '울렸다'와 달리, 여기서는 종이 소리를 내게 했다는 뜻의 사동사이다.

④ '넓다': 한 자리 서술어이다. 주어 '길이'만으로 '길이 넓다'라는 문장이 성립한다. '매우'는 넓은 정도를 꾸미는 **필수적이지 않은 부사어**이므로 자릿수를 늘리지 않는다.

①~③은 두 자리 서술어인 데 비해 ④의 '넓다'만 한 자리 서술어이다.

NoteBase

문 20. <보기>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단어의 개수는?

<보기>
로봇(robot), 배지(badge), 타깃(target),
텔레비전(television), 플룻(flute)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플룻'은 **'플루트'**로 고쳐야 한다. flute의 긴 모음 [u⊠] 뒤에 오는 어말 [t]는 받침으로 적지 않고 **'으'를 붙여 '트'**로 적는다.

보기별 해설

로봇(robot) O: 짧은 모음 뒤에 오는 어말 [t]는 **받침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로보트'가 아니라 '로봇'으로 적는다.

배지(badge) O: 어말의 [d⊠]는 **'지'**로 적는다. [d⊠]를 두 소리로 나누어 받침 'ㅅ'을 덧붙이지 않으므로 '뱃지'가 아니라 '배지'로 적는다.

타깃(target) O: 끝부분의 짧은 모음 [⊠]는 '이'로, 그 뒤의 어말 [t]는 받침 'ㅅ'으로 적어 **'깃'**이 된다. 따라서 '타겟'이나 '타깃트'가 아니라 '타깃'으로 적는다.

텔레비전(television) O: 예전 발음에서 [⊠] 뒤에 모음 [⊠]가 있었던 점과 표기 관행을 반영하여 **'텔레비전'**으로 적는다. 끝부분을 '젼'으로 쓴 '텔레비젼'은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

플룻(flute) X: flute의 [u⊠]는 긴 모음이므로, 뒤에 오는 어말 [t]는 짧은 모음 뒤의 [t]처럼 받침 'ㅅ'으로 적지 않는다. '으'를 붙여 '트'로 적으므로 **'플루트'**로 고쳐야 한다.

표기법에 맞지 않는 단어는 '플룻' 하나이므로 개수는 1개이다.

NoteBase